



&lt;부산미술복간 100호 특집기고&gt;

## 부산미술의 역사가 서린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회고하며


 강선보  
부산미술협회 원로작가

1992년 처음 창간하고 2014년 복간한지 10년. <부산미술> 100호 발간을 축하하며 나의 미술인생과 부산미술역사 그 자체인 부산시립미술관의 역사를 돌아본다.

나는 북한과 전쟁 중일 때 부산으로 왔다. 부산에는 서울의 많은 대학들이 내려와 임시 교교사를 꾸렸다. 나는 그 중 <부산사범대학>에 입학하면서 부산미술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의 부산은 온갖 물류와 문화가 용광로처럼 마구 뒤끓는 곳이었다. 총무동과 자갈치, 부산전역을 걸어 다니면 천막촌과 장작불, 고함소리와 웃음소리 혹은 울음소리들이 아스팔트의 열기와 냄새와 함께 자동차의 경적 등이 비범법처럼 뭉쳐있다 터져 나왔다. 나는 이때 보았던 것들을 그대로 캔버스 위에 올라 앉혔다.

천라지를 짚어서 붙이고 콜라주와 유희물감 등 여러 재료들을 던지고 바르고 불로 지졌다. 그때 제작하여 유일하게 남아 있던 그 시기, 나의 서린한 살 무렵 작품(태양)은 1998년 <부산시립미술관>의 개관기념전인 <부산미술 재조명전>에 출품되었다. 이후 부산시립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이 되었다. 경남 함양이 고향인 나는 대학 때 친구들인 김종근, 김홍석 등과 함께 '예술'이란 단제전에 출품하며 본격적인 '부산미술인'의 일부가 되었다.

<부산시립미술관>과의 인연은 초대 관장이 당시 부산고대 교수이자 친구였던 김종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미술인들



1992년 10월 창간호 부산미술 소식지(원목)와 2014년 2월 재발간된 현재의 부산미술 소식지 복간호.



의 염원이었던 <부산시립미술관>의 초대 관장을 맡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그의 부탁으로 나는 <시립미술관 후원회>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초기부터 문화관광부의 <우수운영기관>으로 매년 선정되었고 부산미술인들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전국의 미술관계자들도 만나면 모두 부러워했다. 그리고 그는 미술관 개관부터 초기 운영의 틀을 제대로 잡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사의를 하고 3년 단임으로 관장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산시립미술관>은 그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오면서 부산시민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부산의 필수 방문코스가 되어갔다. 미술관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작품 구매 소식이나 지역작가 전시참여나 초청 전시와 개막행사가 빈번하여 많은 부산의 작가들이 희망과 창작 모티브를 얻어가고 했다. 그러던 것이 꽤 오랫동안 '시립미술관'에 대한 대화와 관심이 끊겼다. 부산미술과 관련된 전시와 행사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근 10년간 수시로 미술관장이 바뀌었고 학

는다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게다가 학예연구실과 관장 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시설은 사실상 낙후되어 전시장은 비가 새고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는 데도 침묵하였고 언론들도 거의 진전했다.

부산미술계는 난데없는 침체기를 맞이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부산미술의 발전에는 관심과 열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자 나는 왜 부산사람을 선임관장으로 뽑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듣자 하니 부산사람 중에는 인재가 없어서 타지 사람들을 시립미술관 관장으로 계속 뽑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지역의 미술관 인재들을 누르고 선발된 그들이 한 번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간 관장은 있었는가? 하고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1998년 개관당시 부산시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이후 규모와 작제를 갖춘 전국 최초의 공공미술관이었다. 그중 중요한 이슈는 로컬(local)이 아니라 글로벌(global)이

예실장도 타지 출신인데다 원로나 중진의 초청행사도 거의 없었다. 있어도 생색내기인 듯 만나도 서먹한 분위기에서 헤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만날 기회조차 아주 드물었다. 공공미술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작가를 만나 그 자체로서도 작가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글로 발한 전시도 많이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개의 공공미술관이 생겨서 오히려 진정한 로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모두가 국립현대미술관처럼 국내외의 최고의 작가들만 모셔 와서 하는 전시나 운영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세기 한국의 지역공공미술관 관장은 전시기획 전문가보다는 문화의 가치와 안목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 관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미술인들을 보듬고 상생과 시너지효과의 기회와 작품제작의 동기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기 후에도 그 지역에 계속 잔존하면서 그 가치가 실현되는지 지켜보고 후대의 관장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전통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작금의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타지의 관장이 풀지 못하는 대표적인 난제이다. 애정이 없이 왔다 생색내듯 지역미술인의 전시를 짚고 열아주고는 정책과 배려는 눈에도 띄지 않게 운영하다 사고나 일으키고는 부산을 떠나버린다. 전형적인 타지 출신 관장이 저지르고 가는 폐해 앞에 부산시민과 미술인들은 속수무책과 무관심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 것이다. 우리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이태리사람 관장이 온 것도 보았고, 국가대표 축구팀에 유명한 독일 축구 선수였던 사람이 와서 휴양물을 일으키고 나간 것도 보았다. 정말 한국에는 인재가 없었나 하는 생각과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득이 되었나를 생각해 본다.

부산사람이 부산시립미술관의 관장이 못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만을 가지거나 의기소침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관장 선임과정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인재는 없는지 부산미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 제20회를 맞이한 송혜수미술상, 故 송혜수 화백을 회고한다

—구명본 작가, 제20회 송혜수미술상 수상자로 선정—



송혜수작 '부산항' 45x53cm, 캔버스에 유채, 1977.

우리나라 화단 1세대 서양화가인 고 송혜수(1913~2005) 화백은 평양 출신의 실향민으로서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미술 학업에 전념했다. 이후 유학을 마치고 근현대사 속 과도기적 혼란을 겪었다. 그는 학창 시절

부터 외양간을 맴돌며 소를 관찰하고 스케치했으며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고 향토적인 색을 주종으로 하여 소나 말을 그렸다. 그 외에도 불상 여인 등을 다루며 선묘와 색채가 강조된 화풍을 통해 전위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6.25 전쟁 이후 부산에 정착하여 타계할 때까지 전업 작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송화백은 일흔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긴 머리를 노랑계 염색하고 창바지에 빨간 양말을 신고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자유롭고 거침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줄곧 중앙동, 평복동, 남천동에서 창작활동을 해왔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

작가로서 송혜수 미술연구소를 설립해 후진양성에 힘쓰며 미술계의 주축을 이루었다. 또한 2005년 타계 직전에는 사재로 기금을 마련해 송혜수 미술상을 제정하는 등 한국 화단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송혜수 미술상은 송화백의 정신을 계승하며 화단에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며 미술 문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미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미술상이다.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송혜수 미술상은 미술인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화단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를 갖고 있어 한국 미술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20회 송혜수 미술상 심사위원



제20회 송혜수미술상 수상작 구명본 작가의 작품 pine tree\_80.3x116.7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회 이동순 심사위원장은 "올해로 스무 번째 맞는 송혜수 미술상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역량 있고 열정적인 작가들이 신청하여 근소한 점수 차이로 선정되었음은 그만큼 좋은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지역의 창작 환경이 늘 아쉬웠던 때에 기꺼이 전 재산을 내어 놓으시며 미술상 제정을 이루게 하신 송혜수 선생님의 그 뜻은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 의욕을 더하게 하시어 좋은 작가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애정 어린 흔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송혜수 미술상에 수상하신 구명본 작가에게 심사위원들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라며 심사평을 밝혔다.

송혜수 미술상 심사 발표 후 6개월 이내 수상 기념 개인전을 개최하여야 하는 시상 관련 규정에 따라, 수상자인 구명본 작가는 오는 10월 금련산갤러리에서 시상식과 함께 2주간의 전시를 펼칠 예정이다.

문화인칼럼

<동시대 미술과 도시 뉴욕 ①>

[1. 동시대 미술의 중심이 되기까지 : 나비의 날갯짓, 개방성]



김지호 Art Advisor · 아트산 대표



MoMA는 5번가와 57길에 위치한 Heckscher 빌딩 12층에 있는 방 6개짜리 임대 갤러리와 사무실에서 시작된다.

20세기 모더니즘 미술을 주도해 왔던 뉴욕은 '포브스', '타임아웃'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미디어에서 조사하는 '세계 최고 도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등에 랭킹 1, 2위로 매년 선정되는 곳이다. 그리고 동시대 미술에서도 매우 영향력 있는 도시로서의 명성이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미술계를 둘러싼 충격과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뉴욕의 Sotheby's, Christie's Auction House와 같은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의 낙찰가격으로 미술품이 거래되었고, 새로운 미술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인 뉴욕은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이주

하여 약 8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만들어내는 독자적인 문화 스펙트럼(인종, 건축, 공연, 패션, 음식, 행사, 금융 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뉴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도시 분위기는 동시대 미술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

뉴욕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20세기 모더니즘 미술의 흐름을 끌어와 현대미술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 시발점은 미국 최초의 국제 현대 미술제인 아모리쇼 Armory show(1913)에서 출발한다. 아모리쇼는 미국 작가들의 창조적

열정과 변화 열망에 불을 지폈고, 그 파급 효과는 1929년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MoMA)의 설립, 곧이어 1939년 구겐하임미술관 개관 등으로 뉴욕이 미국 현대미술의 선봉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뉴욕은 동시대 미술을 환영하는 미술관 설립, 아방가르드 미술에 대한 미국인들의 높은 관심, 재력 있는 신흥 부자 컬렉터들의 등장 등으로 새로운 미술 문화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도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새로운 변화에 목말랐던 미국 작가들의 뉴욕 이주를 독려했고, 보수적인 문화 분위기의 유럽과 전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유럽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뉴욕으로 불러들이게 되면서 당대 미국미술의 중심이자 현대미술의 구심점을 형성하게 된다.

미국미술의 역사적 순간인 제1회 아모리쇼를 기획하고 주도한 단체는 미국화가, 조각가협회 (Associated American painting and Sculptors, AAPS)의 몇몇 작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대중의 예술 취향에 따르

는 것이 아닌 그들이 선도하는 단체가 되고자 했다.

어들의 야심 찬 기획전사인 아모리쇼는 당시 사실주의 미술이 주도하던 미국 미술계에 다양한 아방가르드 미술을 선보임으로써 미술인들에게 더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알리고 새로운 예술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에 기반한 것이었다.

판화 8장, 드로잉 1장의 소장품으로 아방가르드 미술을 애호하는 여성 컬렉터 3명이 설립한 뉴욕현대미술관은 1880년 설립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지만 미술관 내외적으로 연구 기반의 발전을 거듭하며 현대미술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관이 되었다. 미술 문화와 거리가 멀었던 미국의 뉴욕이 20세기 이후 동시대 미술의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되기까지는 도시가 함의한 다양한 문화와 정치 경제력의 배경을 제쳐 두더라도 동시대성에 대한 다양성과 개방성, 포용성, 관용의 마인드를 장착한 작은 나비의 날갯짓, 그 실천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부산미술협회 2024 제2차 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제32대 제2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제32대 제2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63명의 임원 가운데 53명이 참석했다.

보고사항으로는 △2024 제 23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 수상기념전 △2024 제 32대 사부

사미술협회 임원초대전 「2024 미술로 융합하다」 △2024 제12회 「부산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전 △2024 제50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진행현황 △2024 제13회 BFPA아트페어 진행현황 △2024 제 44회 부산미술제 진행현황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장 면담 등이 있었다.

안건으로는 ▲안건1 2024 제 44회 부산 미술제, 제13회 BFPA아트페어 장소 건 ▲안건2 산업화원 전과, 전입, 복권 인준 건 등이 심의 의결했다. 기타 토의로는 상반기 갤러리 대관 광고 및 현황(금련산 갤러리, 부평아트스페이스), 인쇄물 발주 건적의뢰 홈페이지공고(부산미술대전, 부산미술제, BFPA아트페어, 금련산갤러리 매너저 퇴사 퇴직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일 신입회원 입회비 면제연령 만 35세에서 만 39세로 변경

2024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展



4월3일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 2024 청년작가전 오리엔테이션 사진.

2024년 제 12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展이 열린다. 사)부산미술협회는 부산의 유망한 청년 작가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한자라에서 비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한 부산지역 청년 작가들 중 선별하여 △1부-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한국화, 조소, 판화) △2부-5월 7일부터 11일까지(공예) △3부-5월 14일~18일까지(페인팅) 총 3부로 나누어서 금련산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4월3일 선정작가 36명은 금련산갤러리에서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개별전시 공간 추첨 등 기획의도 및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전시기간 중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선정 작가 4명은 7월 1일부터 27일까지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릴레이 개인전을 펼쳐게 되고, 최우수 선정 작가 3명은 2025년 1월 중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매년 개최되는 청년작가展에는 사)부산미술협회 회원이거나 연고가 부산 또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 부산 소재 대학교에서 미술 계열을 전공한 만 40세 이하 청년 작가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제35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



2023년 부산청소년 미술캠프 전시준비 기념사진.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생태와 삶, 인간(생명)에 대한 감수성에 눈뜨도록 주제로 제35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가 열린다. 3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참가 신청한 부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70여 명을 선발한다. 부산청소년미술캠프는 미술 계열로 진로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품제작과 전시체험, 학생 상호 간에 협업을 통해 직

성과 향유에 맞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다.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대학교 현직 교사·교수들이 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부산청소년미술캠프는 5월 18일~19일 양일간 부산보건대학교에서 미술캠프를 열어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된다. 이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학생 상호 간의 협업으로 탄생한 창작 작품 전시회를 연다. 이어 6월 4일부터 28일까지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창작 작품 순회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 38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2023년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수상기념 사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며 사)부산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38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

「미술은 교육의 기초이다」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씨앗이 되

고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로 만드는 것보다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창의력 개발과 함께 예술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참여대상은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며, 수채화, 한국화(수묵·채색화), 파스텔화, 판화, 이미지디자인(사과의 전환, 발상과 표현), 서예, 문인화 작품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있다.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공모 기간을 거쳐,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작품접수를 받는다. 이어 사)부산미술협회에서 위촉한 전문미술인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입상작은 5월20일부터 5월25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5월20일 오후 5시30분에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 이 작가를 주목한다 24

대담/글 : 정연은 (학술평론본과 위원)

디자인 이상호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학장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이

상호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상호 작가는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면서 미디어콘텐츠 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이면서 동시에 예술종합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학장이기 때문이다. 연구실에서 밝게 웃으며 우리를 반기는 그의 따뜻한 기운이 한순간에 실내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상호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를 설명하려니 어디 서부터 어떻게 또 어디까지 설명해야 좋을지 살짝 어려워진다. 그것은 그가 일반적인 다른 작가들에 비해 너무나 특이한 이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상호 작가는 현재도 미술 작품을 활발히 제작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미술작가지만 그는 특이하게도 과거 미술이 아닌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런 그는 기업KT에 근무하며 IPTV를 기획, 개발하고 디자인하던 뛰어난 미디어 전문가였다. 이후 지금은 미디어 콘텐츠 학과의 교수가 되어 학생들의 예술 교육과 진로를 지도하는 교육자다. 그리고 이상호 작가는 자신의 작업실에 들어서면 치열하게 작업하고 작품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매진하는 성실한 작가다.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이력 때문인지 그를 어떤 견지에서 보면 현재 부산 미술계의 중심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으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술계의 외부에서 내부를 관조하는 이방인, 즉 '다아스포라'로 보이기도 한다.

그는 오랫동안 이방인으로서 미술계의 커다란 테두리 밖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의 내부를 누구보다 정확히 보았으리라. 그렇게 전혀 다른 입장에서의 경험 덕

분에 오늘날 우리 부산미술이 아닌 우리 한국의 미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열어줄 수 있는 인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상호 작가는 '다아스포라'에 작가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본질이란 '다아스포라'같은 약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감은 약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를 뜻한다. 그래서일까 작가의 작품을 보면 주로 약한 짐승 '토끼'가 등장한다. 약하지만 사랑스럽고 귀여운 토끼가족이다. 얼핏 보면 단순히 귀여운 토끼일 수도 있지만 이 작업들에 대해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는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 갈래의 축을 형성해 놓았다고 설명한다.

그 첫 번째 축은 자연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양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흐름의 순간을 포착하여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다. 특히 미술과 음악의 자연스러운 접점을 찾고자 하며, 작가 본인의 철학, 음악 연주와 융합되는 작품을 통해 양자적 소통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양자물리학과 달리 인문사회와 예술적 측면에서 양자의 특성과 응용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감흥은 적지 않다.

결국 양자의 변화무쌍함과 한없이 작고 티끌 같은 약한 존재의 존재이유가 '생존'이라는 점은 놀라운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본인이 그런 약한 존재라는 입장에서 환경과 사물을 대하고 피사체의 미학적 가치를 찾아내는데 주력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작가만이 만들어내는 하늘과 바다의 형상인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서, 작가는 한국적 가치, 동양적 가치에 기반 한 맑고 밝은 느낌의 예술 작업에 몰입하는 것을 즐긴다. 12지신 중에서 지혜롭고 다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토끼 연작을 그릴 때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인간미를 연상하며 작업에 임한다. 토끼는 영적으로도 뛰어난 존재이다. 엄마 토끼와 아기 토끼는 영적으로

혹은 양자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먼 지역에서 아기가 위험에 처하면 엄마의 심박수와 호르몬의 변화가 생길 정도이다. 토끼는 천착에 대비해 굴을 세 개를 판다는 교토삼굴(狡兔三窟)도 있고, 토끼의 현명함에 대한 표현은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더구나 토끼는 다산의 상징이다. 오늘날 다산이 쉽지 않지만 토끼를 통해 생산과 풍요를 떠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작가의 마음인 것이다. 그리고 동양철학적으로 토끼는 푸른색이 상징색이기도 하다. 초목이나 파란색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가는 부산의 파란 바다와 하늘을 상징하는 지혜로운 존재로 토끼를 떠올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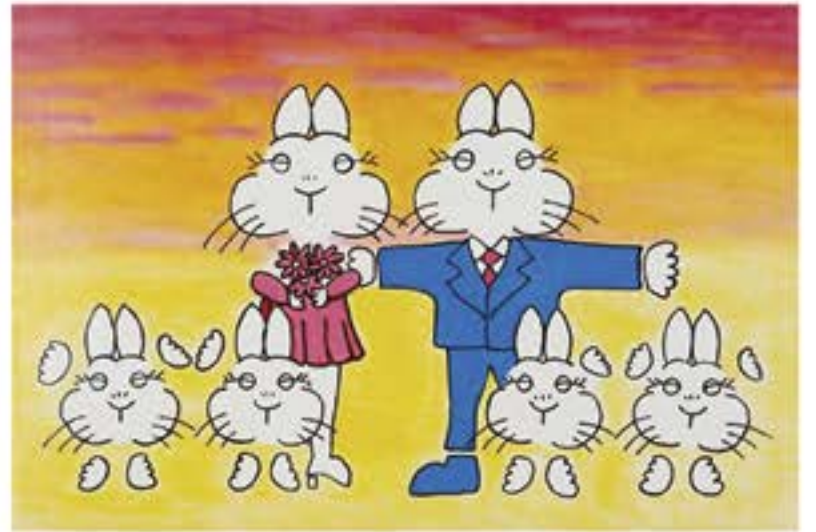
이렇게 현대와 과거를 절묘하게 조합시키고 정신적 에너지를 뽑아내는 작가라서 그런 것일까? 작가는 동시대미술 즉 컨템포러리 아트(Contemporary Art)을 희망적으로 바라본다. 또한 작가는 지금이 동시대미술의 새로운 분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화해온 스마트폰에서 AI가 등장하고, 이제는 양자컴퓨터가 도래하는 시점이라 더욱 동시대의 가치를 순식간에 연결해내는 현재를 모든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술사에 있어서도 스마트문명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것이다. 작가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 된 이후의 AI는 더욱 인간을 위협할 것이며, 그것에 의해 인간의 영역은 아주 축소되거나 자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작가는 이러한 첨단 기술문명의 시기에 우리 인간은 더욱 아날로그에 가까워야 하며, 미술작업에 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미래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이상호 작가는 지금 이 순간도 부산미술의 미래가 될 부산의 청년 작가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 동분서주한다. 작가는 부산의 청년작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는 역사와 자연, 그리고 지역의 스토리가 풍부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부산은 오랜 역사, 교통과 국제화의 중심지, 깨끗한 바다와 하늘, 고전과 첨단이 어우러진 양면적 도시 풍경, 개방적인 시민들, 어딜 향해 달려가듯 분주해보이거나 소리는 들리는 듯 들리는 일상의 소음들, 역동적인 비즈니스 등... 전국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호 작가

## 이상호, 그는 왜 토끼를 그렸을까?



Quantum Rabbit 09-Happy Rabbit Family \_90.9 x 65.1cm, Acrylic on Canvas, Wood Frame, 2023.



Quantum Rabbit 08-Happy Rabbit Family \_90.9 x 65.1cm, Acrylic on Canvas, Wood Frame, 2023.



Blue in Quantum Mind 03-Wave \_116.8 x 91.0cm, Acrylic&Mixed Media on Canvas, Wood Frame, Violin, 2023.

는 이러한 부산만이 갖는 소재와 가치를 잘 살려 청년작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고로 인정받게 되기를 열망하는 한사람의 교육자이자 선배작가다.

음악, 건축학, 해부학, 평화 등등의 모든 방면에 뛰어났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좋아해서 '스티븐 레오(Steven Leo)'라는 예명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상호 작가. 다재다능(多才多能)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람 이상호 작가를 위해 생겨난 말일까? 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닮은 것이 여러 방면에 호기심도 많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실행력'이 분명하다. 생각한 것을 결국은 실행으로 곧바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가의 면모가 아닐까?

그의 그림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던 악해보이지만 지혜로운 토끼는 바로 그의 자화상이었다. 악해보이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움직인다는 양자역학의 이론대로 이상호 작가는 어떻게 보아도 특유의 부드러움과 선함을 갖고 있다. 가장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저녁이 다 되어서 그의 연구실을 나왔다.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두세 시간도 일본처럼 지나가는 것 같다.



작가가 기획하고 진행한 부산 대학연합 졸업전시 '디그리쇼' 포스터

### 빈곳을 조응하는 다완(茶碗), 대나무 변주까지

삶을 사유하는 공간으로  
화면의 깊이를 더한  
김양묵 고문 개인전 열려



부산미술협회 고문 김양묵 원로작가의 개인전이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동도사 성보박물관 2층 2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양묵 고문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부산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부산 미술인들을 위해 BFAA 아트페어를 창립하여 제1회 BFAA 아트페스티벌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연륜을 품은 세밀한



다완-공간\_90,9x72,7cm, oil on canvas, 2019.

작업으로 화면의 깊이를 더한 차사발 다완(茶碗) 시리즈와 동양적인 감성을 살린 변주 시리즈인 대나무 작품 45점이 전시되어 있다.

김양묵 고문의 다완은 경험하지 못한 텅 빈 공간이다.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텅 빈 것의 경험이다. 하나의 차사발이 놓인 공간, 미세하고 깊숙한 곳에서의 조응하는 텅 빈 공간



대나무-변주\_130x50cm, 한지위에 채색, 2024.

으로 부터의 경험이 이번 전시에서 보여 주는 작업이다. 덩그러니 놓인 차사발의 배경과 자체의 색상이 어우러져 관객들이 몸을 숙여 작품 속으로 마음을 드러내도록 만든다.

은은한 미색에서 도드라진 다완(茶碗)의 당당함이 엿보이고 또 그 속에서 붉은빛과 푸른빛이 드리낫다 숨기를 반복하며 조응하는 지점

이 표면이자 화면의 이미지로 구성되고 전개되기도 한다.

빈 곳에 대한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형태와 색상의 반복적 그리기로 작품의 깊이를 더한다. 김양묵 고문은 "넓은 공간을 배우려 한다면 다완 하나가 공간을 오롯이 감당해 내야한다며 텅 빈 작업실에서 앉아

작업에 몰두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다완(茶碗)을 연상하며 단순함의 미학으로 작품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변주 시리즈인 대나무작품은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작가적 시선이 그의 내면을 비추는 듯 과장된 표현을 거부한다. 팽목천, 한지의 단색을 사용해 공간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미적 감수성을 자극한다. 단순히 사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물의 본질과 화면의 빈 여백으로부터의 조응을 통해 깊이 있는 공간의 관계를 형성화한다.

김양묵 고문은 "매번 전시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소회이기도 하지만 이번 전시회도 노력은 하였으나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게 된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계속 추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지킴이전' 통한 작품에 서린 氣 전해

작가적 상상력으로  
현대적 해석 기미한  
입체적 회화기법 선보여



신비한 환상과 같이 청색 바탕에 금빛을 띠는 도깨비 형상에서 비상한 힘과 용맹한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도깨비는 민족 정서 속에 깊이 뿌리내려진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한국적인 토착성을 확보하며 액운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준다는 미신처럼 민족



지킴이 4\_60x60cm, 아크릴, 요철한 지, 경명주사, 2024.

문화 속에 녹아있다. 김용달 화백은 부산사범대학 미술과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미술 교사로 40년 넘게 보내며 다수의 초대전과



GKMI 2212\_72,7x60,7cm, 아크릴, 한지, 경명주사, 2022.

단체전에 참여하며 작가 활동을 이어왔다.

토속적인 도깨비를 주제로 작가적 특유의 시각을 통해 독자적인 미의식과 조형적 형상화에 힘써온

김용달 화백의 개인전이 오는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갤러리 아트룩에서 열려, 6호부터 60x60cm까지 구성된 대표작 도깨비부터 마스크트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깨비'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 '지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반 입체의 요철 형식과 전통 한지를 사용하여 표면 질감을 나타내고 물질의 협착력을 갖게 제작했다.

이러한 김용달 화백의 작품은 2006년 아주대학교 기계공학부 대학원 응용공학과 회전 전자과 기(氣)방출 품질보증서를 받은 적 있다. 기(氣)가 방출하는 것을 작품 크기만큼 평행으로 나오게 작업 했

던 지난 전시와 달리 이번 전시는 평면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화폭의 중앙에 반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므로 기운이 좌우 사방으로 분산되어 일정한 공간에 꼭 차도록 나타났다. 이로써 작품을 방에 하나 두면 그 방 전체에 기운이 방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김용달 화백은 "이제 작품 제작에 있어 스스로 신체적인 한계를 느끼는 것 같이 섬세함이 떨어지며 계속해서 표현의 능력도 저하되어 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작품 통해 기(氣)를 방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신의 안정을 체험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자 작품을 극 소형화하여 펜던트처럼 만들어 사람마다 목에 차고 다니면서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하려 한다"고 전시 소감을 전했다.

### 빛으로 그려낸 묵시록

시원(始原)의 이미지  
무의식 속에 중첩된  
관념적 실재를 그려내



광대하고 길게 늘어진 산, 창공은 초현세적인 금은 빛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세속적인 속세를 벗어나 평화롭고 초월적인 세계로 인도한다.

부산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과거 자아, 사회와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구상 작업을 시작으로 비구상적인 작품까지 넘나들며 삶의 실존적 고뇌를 통해 진지한 사유와 종교적 세계관을 작품에 투영시켜 온 박인관 작가의 초대전이 열렸다.



새하늘 새땅21-4\_90,9 x 65,1cm, 캔버스 위에 유화& 한지쪽과 아크릴, 2021.

'빛으로의 묵시'를 주제로 하여 시원의 이미지를 담아낸 이번전시는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 제1, 2전시실에서 열려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에 의해 구현된 화면 속 미지의 공간은 실재와 현상계 이면에 있는 본질과 내면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며 독특한 시적 정취를 드러낸다. 또한, 심미적



새하늘 새땅22-19\_116,8 x 91cm, 캔버스위 유화 혼합재료, 2022.

종교적 경험이 갖는 빛의 형상을 종교적 세계관과 조형적 요소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번 작업은 2008년부터 깊은 기저에 자리 잡은 빛의 심상을 확산시키며 밝은 색조에 의한 색채 변화를 통해 조형적인 표현 방법을 재정립하며 작가적 사유와 작품의 깊이를 더했다.

작품 <새하늘 새땅 23-7>을 보면, 집중적인 표현과 비정형화된 곡선



새하늘 새땅23-7\_72,7 x 53cm, 캔버스 위에 유화& 한지쪽과 아크릴, 2023.

모양의 높은 산봉우리, 네 마리의 날아가는 새가 한 화면에 등장한다. 마치 가우디의 건축물을 연상케 하는 자연주의, 곡선의 아름다움, 생명의 등장은 시원의 이미지이자 박인관 작가만의 회화적 표현 양식과 근원적 감각으로 묘사된다. 이는 탄생과 소멸의 과정을 거쳐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조형적 형상을 미적 사유화하며 관

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사공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무한한 공간으로서 수행자가 가진 진지한 사유와 근원적인 내면의 에너지를 일깨우는 박인관 작가는 <새하늘 새땅> 시리즈 작품 빛의 묵시로 향한 진리의 표현이며, 종교적 말씀을 구상한 것으로 그림과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함축하는 상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과 말씀은 각각 하나의 언어이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메타포로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종교적 해석과 가치관을 더욱 작품에 투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진리를 구하는 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나아갈 것이다"고 전했다.

박인관 작가의 작품세계는 사공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무한한 공간으로서 수행자가 가진 진지한 사유와 내면세계를 고스란히 전한다.

부산미술 단체를 찾아서 25

「부산현대작가협회」 Since 2013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논의하는 순수미술가들의 모임



2023 금성미술관 정기간에서 찍은 부산현대작가협회 회원들의 단체사진

국제 교류전을 통해 현대미술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다

현대성을 표방하며 새로운 탐색과 시도를 추구하는 부산현대작가협회는 2013년 12월 부산 루소갤러리에서 창립전을 개최하며 부산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 부산현대작가협회는 창립전시 멤버 42명을 시작으로 창작활동을 통한 미술 문화의 향상 및 미술가의 위상과 권익을 확립하고 동시에 미술계의 각종 현안과 미술 문화정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진단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찾발을 내디뎠다.

이들은 지역 미술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창작 및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의 차별화된 미술 단체로서,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술 장르의 지역작가들이 친목과 교류, 전시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대중과 함께 소통하며 예술에 대한 시각을 넓혀가는 풍토의 역할을 하고 부산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두고 있다.

현재 안정연 회장을 필두로 하여 강경순, 강명순, 강영순, 박순곤, 박태일, 구본호, 권순교, 김난영, 김남진, 김덕길, 김미숙(사직), 김미숙(해운), 김성기, 김소영, 김시영, 김양순, 김용기, 김종구, 김지원, 김진, 김향미, 김희진, 도미자, 도태근, 명재경, 박경혜, 박동채, 박미경, 박윤성, 박정연, 박지만, 백혜주, 성현설, 손종민, 송현주, 신명희, 안설이, 안재국, 안정연, 오선옥, 유성철, 유현옥, 윤인수, 이상술, 이은경, 이정호, 이종현, 전두인, 전수훈, 장연경, 정용국, 조영숙, 최광규, 최상철, 최성일, 최자미, 탁경아, 한성희, 홍익종 작가 등 운영진을 포함해 총 59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 중인 부산현대작가협회는 평면 회화부터 입체 작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산의 전문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전, 국제교류전, 타 시도와의 교류전 등의 전시를 기획하여 회원에게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7월 '탈메딕 시대'를 위한 부산현대작가협회 국제교류전 및 예술인 콘서트 세미나라는 주제로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에서 정기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창작활동의 어려움과 침체한 예술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대상을 표현하고 음악회와 세미나 등을 함께 진행하여 시대적 연대 회복을 이루고자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가들의 창의적 시선과 다양한 예술적 표현 양식으로 다원적인 영역



부산현대작가협회 창립전 도록 표지

에서 공감과 치유를 이끌어내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회원들의 전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유지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주제 워크숍이나 강의를 개최하여 현대미술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작품을 통해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예술적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며 하나의 문화공동체로서 함께 현대 미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부산지역과 융합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작가들은 교류전을 통해 지역 미술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해 나가며 적용 가능한 선진사례를 만들고 타 지역과 외국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작가를 초대하고 참여하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부산현대미술협회 안정연 회장은 "앞으로 부산현대미술협회는 현대 미술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작품을 통해 새로운 기법으로 표현하고 고민하여 지역 사회와 더불어 현대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문화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술이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시설을 활용한 전시와 타지역 간의 교류를 통하여 부산 현대미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부산현대작가협회는 현대미술의 동향과 세계적 흐름을 부산의 지역적 특색과 발맞추어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장르와 작품으로 화합한다. 이를 통해 부산미술 발전을 위한 창작 환경과 전시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컬렉터 집중분석

- 스물한 번째 이야기



김성현  
학술영문부과 회장

이 코너에서는 미협회원들의 작품 컨셉 연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미술사에 남게 된 위대한 예술가들의 개념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개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필자와 함께 공부하는 컬렉터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인생의 '의미'는, 삶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다."

(The 'meaning' of life is not to be found in anything other than that life itself.)

- 앙리 르페브르 (Henri Lefebvre) -

일상성(日常性, alltaglichkeit), 이미지의 영원한 주제 1.



앙리 르페브르와 그의 저작, <현대세계의 일상성-박정기(7)피앙>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대상은 '일상(日常)'일 것이다. 특별한 소재가 아닌 일상은 태생부터 대중성을 담보하기에 작품의 주제나 소재로 다룬다면 대중의 주목을 받기에 용이하다. 특히 다른 시대에 비교해서 현대는 대중은 신(神)과 같은 지위와 혜택을 누리는 존재이기에 그들이 선택하는 일상은 소소한 것일 지라도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의미 지어진다. 이 글에서는 지난 첫 번째 글에 이어서 일상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상가와 작가들을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년~1991년)를 추천하고 싶다. 그는 일상생활에 대한 비평을 정신사에 자리 잡게 한 선구자다.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 합리적 이상에 의해서 구획된 기능적 공간인 도시의 일상생활이나 상징적인 감각으로 인지되는 일상적 공간을 분석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인은 바로 이러한 일상에서의 반복적 공간 활동을 통해 사회적 삶을 구조화하는데, 이에 따른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대인의 고립과 소외(疏外)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서 그가 돋보이는 것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현대인이 처한 소외(疏外)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의 계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1908년~2004년, 프랑스)은 일상성의 가치를 예견하여 일상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평생 담았고 사진제본만 아니라 현대 이미지역사에서 전설이 된다. 그는 작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예술의 반열에 올린 포토저널리즘의 선구자가 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 자신만의 루틴(routine)을 믿고 끊임없는 일상의 매 순간을 지속 가능하게 관찰하고 놓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부탁한다.

"결정적 순간을 찍으려 빌버둥 쳤는데,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All my life, I've tried to shoot the decisive moment of life, every moment of life was the decisive moment.)

-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

그리고 올해 88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작품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는 2018년에 세상을 깜짝놀라게 한다. 그는 브레송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역시 일상성의 위대함을 작품들에 표현하였다. 그 중 <예술가의 초상 Portrait of an Artist>(1971)이 그해 11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현존 작가 중 최고 경매가인 1,020억 (당시 한화 기준)을 기록한 것이다.

호크니가 20대였던 당시의 세계 미술계는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바넷 뉴먼 등 추상미술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작품 테마의 대부분을 자신의 일상을 다른 자전적 내용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중의 한 작품이 <예술가의 초상>인데 자신의 일상을 꾸준히 관찰·성찰하였고 발효한 일상의 위대함을 진정성 있게 담아 작품화 했기에 현대미술계의 전설로 남게 된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호크니는 작품 제작의 기법에 막힘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 스타일들은 모든 기법을 한데 모은 종합선물 세트 같아서 우키요에+큐비즘+팝아트+라얼리즘+내추럴리즘+사진/영화기법, 등 미술계의 모든 기법을 흡수하였다. 이러한 그의 제작 태도는 현대미술계의 중심인 y.B.a 후배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결정적 순간> 시리즈 중



데이비드 호크니, 예술가의 초상 :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020억에 낙찰

#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울수도 들락날락은 지난 12월에 오픈했다.



2층 '드롭캔버스'는 벽과 유리가 거대한 캔버스가 되어 크레용, 사인펜으로 자유롭게 드로잉할 수 있다.



지하1층 '북북도서관'은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부드러운 봄 햇살이 피어나는 연분홍빛 꽃 봉우리는 봄을 말어 올리고 있다. 맑은 연두의 새순을 보니 온 세상을 뚫 터치로 날리고 싶은 오늘이다.

울수도문화회관에 도착하니 저 멀리 알록달록한 들락날락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들락날락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아날로그(analog)와 디지털(digital)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놀이형 학습 공간이다. 울수도 들락날락은 2023년 12월에 오픈했다. EBS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가족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이며 아틀리에, 북갤러리, 북캐치북, 옥상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수도 들락날락은 부산시의 다른 들락날락과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 EBS와 협력하여 조성한 공간이라 방귀대장 뽕뽕이 등의 EBS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예술적 감각이 많이 느껴지는 공간이며, 울수도의 아름다

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약은 꼭 필요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먼저, 지하 1층에는 <아틀리에> #인터랙티브존 #작은도서관 #아외공간이 있다. 나뭇 주제로 자신을 표현하고 채색하는 드로잉 체험 공간, 형형색색의 컬러 큐브를 조합해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이언트 컬러링'은 거대한 색연필로 색칠하는 공간이다. 깜짝 놀랄 색연필 크기는 아이 키만 하고 제법 무거운 텐데 색깔도 바뀌가면서 즐기고 있다. 나뭇잎 그려보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화가가 따로 없다. 뽕뽕 볼볼 장에는 볼볼을 벽에 던지면 방귀대장 뽕뽕이,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과 볼볼까지 나타나니 공을 던지는 걸 더 재미있어한다.

수유실 및 기자고 교환대, 가족 휴게실도 있다. 북북랜드는 EBS 캐릭터가 있는 판타지 공간이다. 지식 성장하는 북북도서관은 아이와 함

께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등근 좌식 소파는 폭신하면서 편하고, 공간이 아지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다. 책꽂이 색깔도 초록색으로 상큼하다. 좋은 책들이 더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책을 읽으면 책과 더욱 친해지겠다.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책의 컨디션도 좋았다. "독서는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이며, "집은 책으로, 정원은 꽃으로 가득 채워라"는 말이 생각났다.

1층 <북갤러리> #갤러리 #작품 #미디어존 #포토존 이곳은 예약 없이도 놀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약한 90분 시간을 잘 배분해야 한다. 먼저 지하 1층부터 가서 신나게 놀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면 된다. 1층 북 갤러리는 큐브 형태의 '인팩트 존'은 자유로운 예술 놀이, 잠재력, 일상 속의 예술 등을 표현한 상징 조형물이다. 20m 대형 미디어 아트월에는 '부네차아 BUNEZIA(부산 장림포구 아담)' 이곳을 배경으로 동화 '미운 오리 새끼'와 어린 왕자 영상이

나왔는데 느낌이 색다르다.

2층 <북캐치북> #낙서자유구역 #놀이가공예술 #드로잉 전체적으로 잡에서는 할 수 없는 낙서에 대한 자유 공간이 있다. '드림월 컬러링' 벽과 유리가 거대한 캔버스가 되어 크레용, 사인펜으로 드로잉하는 '드림 캔버스'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책을 보고 또 읽고, 읽고, 낙서하면서 벽에 붙여보기도 하고 '부욱부욱'에서 자유분방하게 놀 수 있다. 잡에서는 벽이나 유리에 낙서할 곳이 없지만,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그리며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펼칠 수 있다. 핑크뽕, 반개맨, 방귀대장 뽕뽕이 등 다양한 캐릭터 도안이 준비되어 있어 색칠도 하고 글도 따라 써본다. 모든 것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책장, 등근 소파, 창문틀 등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쓴 미적인 감각들이 돋보인다.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쑥쑥 자라게 해줄 것 같은 예쁜 공간들뿐이다. tip으로 개인물품 보관함이 있어 걸옷이나 가방을 보관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다.

3층 카페로 올라가는 파스텔톤 계단 색깔도 예쁘다. 카페에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즐거운 웃음을 보내고 있다. 창밖으로 펼쳐진 낙동강과 울수도의 광활한 자연풍경이 아련하다.

부산에 있는 다른 들락날락을 살펴보면, 부산시청(연제구), 울수도문화회관(사하구), 사상구 옥아종합지원센터(사상구), 만덕도서관(북구), 동구 시민마당(부산진역)이 운영되고 있다. 책으로 정보를 접하는 기존의 학습 방식을 넘어 몸으로 움직이며 상호 대화하는 체험형 문화 학습에 초점을 둔다. 현재 부산 제1호 거점형 부산시청 '들락날락'은 전국 최초로 광역시청 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견학도 아이지고 있다고 한다.

'울수도 들락날락'은 EBS 콘텐츠(contents)를 통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부산권의 랜드마크처럼 빛났다. 행복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의 주인은 바로 웃음소리와 아이들이다. 부모들은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남는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술평론분과위원 진수아

관람시간: 1회차 10시~11:30, 2회차 14시~15:30, 3회차 16시~17:30, 매주 월요일 휴관(점심시간: 12:00~13:00) / 관람료: 무료 / 예약 인터넷 홈페이지 울수도문화회관 (seha.go.kr) / 찾아오시는 길: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25(울수도 문화회관) / 주차: 울수도 공영주차장 유료이용 / 연락처: 051-294-0505

## 제32대 임원전 「미술로 융합하다」 워크숍



2024 제 32대 임원전 미술로융합하다 전시드레스(왼쪽)과 4월 27일 오후 3시 대산농원에서 열린 2024 임원전 워크숍 및 대토론회 기념사진.

워크숍을 4월27일 오후3시 녹음이 짙은 대산 농원에서 가졌다. 이날 제32대 임원뿐만 아니라 부산미술협회 최고령자인 강선보 원로회원, 장광화 증경작가, 송영명, 권달술, 박태원 역대 고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전망에 대한 논제로 발표시간도 가졌

(사) 부산미술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다짐하고자 각 부문의 전문가로 마련된 2024 제32대 임원전을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개최했다.

본 협회 32대 임원 전체가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1부 전시는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2부 전시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는 (사)부산미술협회 제32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임원들로 인생과 철학이 담긴 작품세계를 선보이며, 본 협회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성황리에 마무리 된 임원전 전사이후 부산미술협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으며, 부산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공간 운영, 관광콘텐츠 제작 및 홍보 방안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2024년도 중점적인 각종 전시와 행사내용, 일정 등을 연계해 본 협회가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석한 임원 전체가 한 목소리를 담았다. 마무리 발언으로 부산미술협회 제32대 최장락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예술의 본질을 잃지 않는 회원들을 위해 성장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 2024 용두산·부평 입주작가 기획전 개최



2024 부평아트스페이스 입주작가 기획전 포스터(왼쪽)와 용두산미술의 거리 입주작가 기획전 포스터.

지난 11월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된 사부산미술협회 예술창작공간 용두산 미술의 거리와 부평아트스페이스 레지던시 작가 기획전이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연이어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2024년 사부산미술협회 레지 전시 작가 초대전은 자마다의 개성을 아우르며 지역의 미술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부산 원도심 지역의 중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용두산 미술의 거리의 박지연(공예), 안수진(한국화), 윤연정(한국화), 이규열(디자인), 이수아(공예), 정소영(공예) 작가는 少·昭·霽(소소소) 파트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열어, 공예부터 평면회화작품까지 총 56작품으로 구성되어 선보였다.

연이어 열린 부평아트스페이스 입주 작가들의 초대전은 작가들의 성을 따서 지어진 '배선송이'라는 주제로 하여, 배하람(서양화), 손효정(서양화), 송상현(디자인), 이승훈(디자인) 작가들이 작업한 드로잉, 영상설치 작품 등 총 53점의 작품들로 전시장을 채웠다.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함께 아어나갈 젊은 작가들의 활약이 기대되며 부산미술협회는 청년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발전과 자립을 돕고, 그들의 작품을 다각도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판화가 홍익종 수상기념전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목각 판법의 진수 선보여



2024 오늘의 작가상 수상기념전 오프닝에서 시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4년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을 받은 판화가 홍익종의 수상기념전이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3월 5일 열린 전시오프닝에는 권달술 심사위원장 및 사부산미술협회 고문, 원로 작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선후배 작가, 협회 회원,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사부산미술협회 '오늘의 작가상'은 투철한 작가 정신으로 부산에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펼쳐온 참 미술인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부산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500만 원, 청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400만 원을 수여한다.



2024 오늘의 작가상 수상기념전 전시전경

2024년 오늘의 작가상 본상은 곧은 절개와 기상으로 우리의 정서적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소나무를 통한 판화작업으로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구축하며 독창적인 화풍을 확립해나가고 있는 홍익종작가가 수상에 많은 축하를 받았다.

본상을 받은 홍익종 작가는 부산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졸업 후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16회의 개인전(부산, 서울, 미국, 울산)과 제25회 부산미술대전 판화 부문 최고상 수상, 다수의 국내외 전시 기획과 그룹전, 아트페어(부산, 대구, 강릉, 울산, 포르투갈, 샌디에이고)에 참가하는 등 판화작가로서 뛰어난 작품성을 주목 받아왔다.

전통적 표현 양식인 목간 판법 블록 판법이나 오목 판법으로 제작하고 다색의 경우는 먹이나 수성 안료, 판화 전문 유성 안료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재료와 방식을 고수한다. 이를테면 단지 한지의 얼룩과 조각 등을 실리고 애써 배경을 제거하거나 번지는 상황을 억지로

방하지 않고 재료와 재질의 습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등 자연스러움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목판의 결을 살린 절제된 선과 무박한 표현, 지각을 일으키는 색과 모양으로 자연에 내재한 생명력을 본받아 공동체적 정서를 대신하는 소나무를 대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 주목 이룬다.

또한 기계와 절개, 조형적 아름다움을 가진 소나무의 다양한 형상을 매개로 하여금 선형적 이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근원, 본질에 대해 탐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했다. 사회적 질서와 지각적 근간을 이루는 철학적 측면에서 자기비판과 정의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동시대의 작가로서 창의적 방식과 독창적 표현으로 동시대 예술을 대표하기 위해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철학적 고민과 사유를 이어간다.

홍익종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작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목판화 작품들과 창립기념 판화 사랑 작품

을 포함해 총 40여 점으로 전시했다. 판화는 회화와 달리 찍어내는 조형적 언어로 그것을 수용하는 표현의 기법, 절제된 형식과 공정은 심도 있는 본질 묘사를 위한 과정으로 작가 때론 판화의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러한 홍익종 작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작품활동을 보여주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수상 기념전의 의미가 깊다"고 전하며, "오늘의 작가상 사상 및 수상 기념전에 와주시는 부산미술협회 회원 및 운영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작업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고 회원들과 생각을 맞추기며 계획을 세우는 등의 협회 활동을 통해 각각의 폭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위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문을 넓혀가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히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는 7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2024년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청년작가상을 받은 조각가 이정운 작가의 전시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년작가상의 이정운작가는 현실의 공간을 다양하고도 즐겁게 휘젓는 듯 과감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에서 작가의 기계와 혼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의 작가상'은 자신의 작업을 되돌아보고 끊임 없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탐구하며 독창적인 세계를 수립해 나갈 기회와 장이 되고 있어 많은 지역 작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부산미술협회는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선정을 위해 올해 11월~12월경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 Close Up 27

## 다원화된 사고의 확장으로부터



청년작가 정소영

는 듯한 유기적 형태미를 표현하기 위해, 이 건물의 철골구조를 자세히 보면 정형적이지만 멀리서 보면 유기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건축이 아닌 예술에서도 구조미의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존 페어의 작품들은 추상화 시각 분석, 형태와 구조에 중점을 두고 3차원 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과도 같은 구조적 조형미를 나타낸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추상성을 발견하고, 움직이지 않은 재료를 통해 일정한 움직임을 표현하려 하였다.

위에서 찾아본 건축에서부터 예술까지의 폭넓은 예시들은 각각 다른 방식의 구조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구조 및 조형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미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조사하면서 조립식 장난감의 조인트에 의한 형태확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인트는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하드웨어이며, 조인트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율성이 특징이다.

조인트의 재료와 형태는 많지만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형태에 맞는 조인트는 직각구조의 형태로 이루어져 빨대같은 부재를 기울



vine\_2400x1800mm\_p.p., 2023

수 있는 플라스틱 조인트가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인트를 직접 만져보고 만들어 보았을 때 직각구조의 조인트 방식이 반복적인 구조미를 나타내는데 적합하지만 단조로운 형태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성질의 우레탄 호스를 부재로 사용하여 유연하면서 정형적 형태를 구현해 보았으나 작품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인트와 부재를 사용해 정형적이면서 유연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로닝&에르완 부홀레 형제의 algue의 작품이 떠올랐고 이 작품의 작품형식이 모듈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듈은 기계, 가구, 건물 등을 구성하는 규격화된



nel\_2400 x 970 x 153mm\_band, wood, buckle.

조립부품을 말한다.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며 따로 또는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간단한 하나의 형태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만하게 되면 결론을 알 수 없는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된다.

이를 통해 모듈의 형식을 차용하여 2가지의 작품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는 기성품으로 제작되어진 조인트를 이용해 부재들을 연결함과 동시에 정형적인 형태의 반복이지만 자유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부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기성품을 부재로 사용하여 조인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작품 vine은 첫 번째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며 기성품의 선그림과 pp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pp를 사용한 부재는 곡선의 방향을 다양하게 두어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선들에 두께를 주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연출하였다. 네클모양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pp부재의 디자인은 철저히 계산된 정사각형 속 곡선들이며 1가지 형태를 뒤집거나 돌려가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작품 nel은 두 번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며 일정한 두께에 규격화된 선의 간격 사이 버클을 장착하여 간단한 조인트 하나로 정형화된 형태의 변화를 일으킴에 초점을 두며 제작되었다. 버클의 디자인, 사이즈, 형태, 선을 고정하는 프레임 모두 계산되어 제작되었지만 정형적인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틀을 깨는 재미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자의 작품들은 다양하게 연결되고 계속해서 확장이 가능하다. 건축과도 같이 가까이 보면 정형적이지만 멀리서보면 유기적이고 유연함을 표현하고 싶었고, 계속해서 유연함 속 정형을 구현하고자 한다.

경성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가구제도 학사 졸업 / 경성대학교 공예학과 일반대학원 석사 수료  
웅두산 미술의거리 레지던시 입주작가 개인브랜드 soyoung room 대표  
한국예술치유연합회 총괄디자이너 개인전4회, 단체전 다수

## 부유하는 조각들에 대하여



공간을 탐구하듯 시선을 사로잡는 전위적 조형 작업과 장소 특성을 살린 소재와 대형 설치작업으로 작품 영역을 넓혀 온 손몽주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유니캡스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은 '떠다니는 조각: Floating Sculptures' 이라는 주제로, 반복적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며 쌓여가는 궤적의 순간을 컬러조각과 거울로 나타냈다.

세상에 떠 있는 수많은 심상처럼 흔들리고 넘실거리는 조각의 움직임은 최근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스윙(swing)의 반복과 달아있다. 마치 부유하는 수많은 조각 고유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모빌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의 역동성과 삶의 균형을 좇는 형상을 빚내어 표현하고자 했다. 모빌의 움직임은 따뜻한 컬러와 견고한 금속을 결합시키며 가벼운 클레이, 차가운 스테인스와 아크릴 거울을 활용한 경쾌한 움직임과 부분적 양감을 통해 드러냈다.



핑크랜드\_700x400x50mm\_SUS, 우레탄도장, 2024.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뿐만 아니라 지난 작업 영상을 보여주는 아카이빙 방, 설치미술, 건축적 실현, 드로잉 등 25점의 작업으로 꾸며졌다.

손몽주 작가는 "이번 전시는 나에게 지속적인 작가 활동의 한 부분이다.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가군의 한 사람으로서, 장소성을 기반으로 대형 작업과 병행할 수 있는 중·소형의 조각을 제작하여 표현의 영역을 넓힐 수 있으며 나아가 '작가의 설명 시간',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시 소감을 전했다.

## 다른 듯 같은, 또 다른 여인의 초상



서양화가 김미숙

화려한 색채와 레오파드 무늬를 상징적으로 사용해 인간에 대한 내적 감찰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김미숙 작가의 전시가 양산에 자리 잡은 에원갤러리에서 '심과 아우리진, 심을 통해 이끌어내는 조화를 주제로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REST 시리즈 작품들과 여인의 일상 속 사물에 투영된 감정, 새로운 시각에서의 경험과 기억이 그려진 최신작품 총 18점을 선보인다. 진정한 '남을 찾기 위해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심 이상의 위로와 가치를 가진다.

원초적이면서도 동물을 연상시키는 무늬를 사용하여 추상적인 감정과 분위기를 강렬하고 독특한 색채로 표현하며, 여인에게 투영된 작가의 심상이 아우리지는 세계관을 통해 내면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시선을 획득하는 과정을 담아낸다. 김작가는 이번 작품을 생각하며 "작품은 마

치 일기장처럼 나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소중한 인연, 추억, 경험에서 느낀 감정과 내면이 여인과 여인의 시선 및 사물에 투영되고, 사랑하는 일상과 주변이 레오파드로 표현되며 여인을 감싸고 위로하며 공감하고 있다. 또한, 작품은 저의 성장과 여인의 성장이 서로 아우리지는 과정을 그린다. 나의 경험이나 기억이 그려진 작품들은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도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고자 한다.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시선을 획득하는 과정을 작품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가꽃어른은 슬리퍼\_130.3x130.3cm, Acrylic on canvas, 2019.

## 기억은 서로 다르게 변주된다



작업 초기부터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이라는 개념에 주목하며 올곧은 방향성으로 묵묵히 작업을 이어 온 서양화가 배남주의 개인전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맥화랑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아크릴에 캔버스와 종이로 혼합 재료를 이용한 드로잉들로 구성됐다. 특히, 아크릴 물감을 이용한 화면 위에 사진 이미지를 전시하여 겹쳐진 두 이미지가 혼합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는 작업방식을 통해 새로운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이 뒤섞이는 일련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작업의 개념과 끊임없는 방법론적 연구를 엿볼 수 있었다.



망리(Obivioni)\_91cm X 91cm, Mixed media on canvas, 2022.

배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영향을 받아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에 흥미를 느껴 정지되어 있는 사건이 아닌 끊임 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의 가변기억을 사용한다. 전시 제목처럼 가변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질문하고 지난 전시에서 줄곧 이야기 해오던 중간적 이상을 가변기억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고 전하며, "지금까지는 중간적 이상이라는 것에 집중하여 표현하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경계에 대한 질문으로 작업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 삶을 조우하다



조각가 박주현

오랜 작업의 동반자로서 망치의 머리 쇠를 의인화하여 재해석한 조각가 박주현 작가의 전시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양산에 위치한 스페이스 나무 오로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우'라는 전시명으로, 사람 형상을 조각한 <서있는 망치>는 나무망치 머리 부분에 눈, 코, 입을 선적으로 표현하여 사람의 머리를 대신한다. 망치는 이를 사용한 노동자의 끈고한 삶이 충만한 도구이다. 그는 <서있는 망치>를 통하여 목수가 사용하던 도구에 목수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망치 자체를 의인화하여 인간과 도구 사이의 물화(物化)를 표현한다.

망치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결합하여 해학적으로 조각하였다. 작품 속 '나무망치'는 도구의 본질을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예술의 관

점으로 되새김질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중앙에 4m 크기에 대형망치(소년의 꿈)와 각종 오브제가 조합된 형태의 설치작품과 3D프린트를 활용하여 도구를 의인화한 형태의 작품 등 30점을 선보인 박작가는 "매회 전시를 통해 새롭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다. 불은 쇠를 단련시키고, 인간은 힘든 역경을 통해 철이 든다고 한다. 예술가가 철들면 안되지만 어찌 되었든 앞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작업하며 살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리나무 The Sound of a Tree\_150x150x300, 나무, 오브제, 저속무터, 인제대학교, 2024.

## 흑과 백사이로 펼쳐진 시공간



관조한 실경을 바탕으로 자연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축적된 시간과 느낌을 현대 산수화로 그려낸 한국화가 박선희의 개인전이 3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 센텀시티에 위치한 아트소향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秋聲賦 SONG OF AUTUMN)에서는 경주 남산과 강원도와 충북을 지나 남한강이 되는 청풍호를 소재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낙동강의 시작인 깊은 산속과 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그가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신비로운 오감의 촉발로부터 제작된 작업과 거대한 자연이 보여주는 청풍호의 다채로운 변화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 22점을 선보였다. 또한, 전통적인 먹과 종이를 이용한 섬세한 표현 방식과 구성을 통해 대형 수묵화 작품도 함께 선보이며 웅장함을 더했다.



청풍호-9\_72x122cm, 한지위에 수묵, 2024.

그는 "추성부(秋聲賦)는 송나라의 문인이었던 구양수가 글자 그대로 가을의 소리를 시로 노래한 작품의 제목으로, 자연의 소리는 수많은 예술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옮겨낸 것처럼 시간과 공간, 경험자에 따라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하게 변화될 수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오랜 세월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을 관통하는 보편성과 동시대 작가의 오감을 통해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여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 모든 미래는 과거가 된다



민화가 박선희

관화가 박선희 작가의 개인전이 4월 2일부터 20일까지 르네시매 갤러리에서 열렸다.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50호에서 2호까지 찬콜레(chine-colle), 목판(woodcut), 실크스크린(silk screen), 고무판(Linocut) 등 전통적인 판화기법과 함께 Digital print 기법을 사용한 35점의 판화작품을 전시해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박선희 작가가 바라본 민들레꽃과 흙씨의 생명력을 다채로운 판화기법으로 담아내 많은 관람객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오래된 미래'라는 전시 제목이 의미하듯이 우리의 과거 전통 문양(농화판)이나 표현 방법들을 응용하여 현대적 판화작품으로 표현해 각각의 작품마다 독립적인 표현 의도를 담았다. 이에 박 작가는 "이번 전시의 민들레를, 예를 들면 과거 우

리나라 전통 농화판의 문양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민들레꽃과 흙씨의 연속성을 통하여 영원한 봄을 제시하여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오래된 미래라는 전시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향후 작품 활동도 이번 초대전의 작품을 더욱 발전시켜 전통 농화판 문양을 활용한 판화작품들을 제작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농화판 문양에 영감을 얻어 전통에 접목되었지만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고 융합적인 아름다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기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오래된 미래\_Woodcut, Linocut, Chine-colle, Silkscreen, 2023.



### 제50회 부산여류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과 동행하다」

부산여류회



제50회 부산여류전 50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과 동행하다」 전시발표회와 제50회 부산여류전 기념 단체사진.

사조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미술 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7인의 여성교사들이 '여류7인회'를 만들어, 2년의 작업 끝에 1975년 창립전을 열었고, 이후 '부산여류회를 거쳐 부산여류전으로 전시를 이어왔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부산여류전의 정기전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과 동행하다'는 주제로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작품으로 예술적 영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함께 하는

전시로 기획되었다. 50년의 시간을 존속하며 매년 정기전과 여러 번의 초대전, 기획전을 가져온 부산의 유일한 여성작가단체 '부산여류회'는 다양한 조형 언어를 통하여 부산 시민들의 미술향유와 여성 작가 지변확대를 도왔다. 앞으로도 소속작가로서의 자부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로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산 여성 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제32회 열매전 정기전 개최

열매전



제32회 열매전 정기전 전시포스터와 제32회 열매전 기념 단체사진.

부산지역 2세대 원로작가들로 구성되어 주로 구상 계열 작품을 지향하고 활동해 온 열매회의 정기전이 지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창작 활동에서 벗어나 왕성한 작품을 선보인 올해 정기전은 18명 회원이 참여해 총 27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을 주제로 삼아, 구상, 비구상 작품을 중심으로 혼합매체와 디지털 기법 등

다채로운 표현 양식과 작품세계들로 구성해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백낙효 회장은 "4반세기 동안 부산 지역 문화의 뒷받침이 되어온 열매회 회원들은 작가 각자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어려운 팬데믹을 이기고 개척하게 된 이번 정기전을 통해 원로들로 구성된 열매회의 노익장을 선보이고 선후배 동료 작가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제63회 길동인전 정기전 개최

길동인회



제63회 길동인전 정기전 전시포스터와 제63회 길동인회 기념 단체사진.

부산교육대학교 동문들이 그림의 길을 함께 걷자는 의미에서 1963년 창립된 길동인회의 정기전이 지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청 제3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의 부제는 '길동인 작고 작가 문순상, 박충수, 박상언 화백과의 동행'으로 하여, 그림을 위해 한평생 살아온 분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부산화단에서 활동했던 작가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고 그분들의 삶과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

다.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이한 길동인회는 서양화, 한국화, 민화 등의 평면작업을 중심으로 3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길동인회 안태준 회장은 "지난 60여년간 정기전을 꾸준히 개최하며 길동인의 뿌리인 부산 원로작가님들의 발자취를 남기고, 현시대에 길동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젊은 후배들의 영입을 통한 후진을 양성하고 발전을 모색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18회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정기전 개최



제18회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정기전 포스터와 전시장 사진.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제18회 정기전 '물의 하모니展'이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부산시청 2, 3전시실에서 열렸다. 수채화분과는 화폭에 스며든 서정적인 색감과 변점을 통해 아름다운 찰나를 만들어내는 수채화의 맥을 이어가고자 2007년 제1회 전시회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초대작가와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확장된 예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수채화, 아크릴 구상, 비구

상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 및 대구, 포항, 경북, 부산지역의 초대작가 19명, 소속 회원 61명, 비회원 80명이 참여해 160점을 선보였다. 이순이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수채화 작업의 물의 가변적이고 특유의 순수함이 내면을 이루만지고 담백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순수한 열정으로 수채화의 중요성을 토론하고 그 맥을 꾸준히 이어 나가며 부산을 대표하는 수채화 단체로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 제11회 부산민화협회 정기전 개최



2024 제11회 부산민화협회 정기전 전시포스터와 단체사진.

민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기반으로 한 미술단체, '부산민화협회의 정기전 「소망을 그리다」가 지난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렸다.

부산시청 2, 3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는 회원 82명, 부산미술협회원 11명, 비회원 71명, 어린이 50명이 참여해 정통을 주제로 회원 공동작품 50점, 어린이민화 50점 등 총 178점을 선보였다. 전통 동양화 방식과 주름자에 아크릴로 채색을 하거나 옷칠과

자개를 이용한 새로운 기법을 선보였다. 강명화 회장은 "이번 정기전은 자신만의 경험과 느낌과 사고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제약을 두지 않았다"고 전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관람객 수를 보면 민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느는 것을 체감한다. 이번 전시회가 민화의 대중적 인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라는 동기부여요인도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제19회 부산환경미술협회 정기전 열려



제19회 정기전 전시포스터와 개막식 데이트 키팅.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가속화되어 가는 환경 문제를 마주하고 이에 따른 자연과 환경 보호 운동을 펼치며 실존적인 위험과 해결책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는 '부산환경미술협회의 정기전 「환경을 수호하다」' 주제로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열렸다.

2004년 을숙도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창립전 이후, 19번째다. 발달한 문명과 다원화된 환경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삶, 전례 없는 팬데믹 경험 이후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오염 문제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실천 운동이 확대되어 가는 만큼 이번 전시를 통해 현 인류의 다양한 환경 문제와 우리의 일상 속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 문제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열렸다. 부산시회 고문, 자문, 회원 80명, 비회원 부산지역 선정 초대작가 등 총 100명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20점 이내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일정

부산미술은 부산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격월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발간 전월 15일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술협회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faa2015@hanmail.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 (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전시 주제 또는 작가의 한마디를 담은 1~2줄의 문장]



224-77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전술적 실천  
부산현대미술관



38-67  
올로레스 미리의시간-블루  
고은사진미술관



316-77  
봉수능란한 관동  
부산현대미술관



321-531  
김우진 A COLORFUL LIFE  
소몰아트스페이스



325-61  
이상현개인전 꼭꼭지  
아트스페이스 링크



326-022  
천의설계-미술감독이 디자인한 영화 속 세계 in 부산  
부산영화제창체물관 2층



42-518  
정철교 초대전 서생그곳에  
유니캡스갤러리



42-525  
금진 개인전 할머니의 집의 네가지 식물  
홍티예술촌



42-525  
김정은 개인전 FLOODING  
홍티예술촌



45-517  
유현경 박석에서 비둘린까지  
소리자갤러리



46-517  
최인선 개인전 경계위의 여백  
갤러리의 숲



46-524  
타노 개인전 본지붕광  
이탈갤러리



416-514  
임영진 초대개인전 Garden of water  
차이보아트



426-615  
이수경 개인전  
어름파니



426-517  
21세기 동시대미술 in 부산  
동구 문화물앗폼



426-526  
공꾸는 봄  
갤러리조이



2024.4.29-5.5  
제87회 군북회  
부산시청 제1전시실



5.2-6.30  
이성재 기획초대전 행위의 반복과 시간  
윤숙의 현상  
실미미술관



5.17-6.7  
배달래 개인전  
갈무리마레



5.9-5.12  
아트부산  
엑스콘



5.15-5.31  
꽃피는 부산항 11층 25인  
미광화랑



5.27-6.1  
항성희 석기민산길 특별전  
송갤러리



6.19-6.28  
부산북구미술 축전  
북구문화예술회관



6.25-6.30  
제32회 부산한국화전  
(부산 경남 한국화 기획교류전)  
금련산갤러리

부산갤러리 전시소식

인사아트 부산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5.1-5.6  
이희호 개인전



5.8-5.13  
한국미술 중진작가 소품전  
신미술회



5.15-5.20  
다름전-다름을 잇다 강인숙  
설경숙 신미라 이미라 정지연  
조소옥



5.22-5.27  
조용문 Mapping



5.29-6.3  
류동필 세계의 감정



6.26-7.1  
최윤선 A sweet melody in life

부산 미술 등록번호 부산남.400005

- 발 행 인 : 최정락
- 발 행 처 : 새부산미술협회
- 편집위원 : 김성현 · 김종원 · 정연은 · 진수아
- 편집기자 : 김은비
- 주 소 :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



### 제44회 부산미술제 개최요강

주최 :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 주관 : 부산미술제 운영위원회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MBC, KNN  
 장소 : 부산항 제1부두 참고(※예정, 중앙동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옆)  
 기간 : 2024년 9월24일(화) ~ 10월3일(목) (예정)  
 출품대상 : ① 부산미술협회 회원 (단, CMS 등록된 회원)  
 ② 비회원 : 본 협회 회원 1명 이상의 추천 필요함

#### 작품출품규격

구분	규격
평면(회화)	20호 이내규격(영수) - 가로 액자포함 가로 72.7cm 이내
디자인	A1사이즈 이내 - 세로작품 권장
입체(조각, 공예)	90cm×90cm×180cm이내 최대포함 ※입체작품 최대-개인준비 도난의 우려가 있는 소형의 작품이나 귀금속 공예 등은 무명봉으로 봉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출품하셔야 합니다.
영상, 설치, 행위미술	출품원서 검토 후 전시공간 조정 ※입체작품 최대-개인준비
서예·문인화	전자1/2 이내의 세로작품(가로작품 액자포함 72.7cm 이내)

출품수 : 1인 1점에 한함

출품자료 제출일자 : 2024. 7. 5(금)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마감(7기한영수)

작품자료 : 가출품원서(소장양식)1부, 인물사진(칼라) 1매, 작품사진(A5, 15×17cm, 300dpi) 1매 (웹 하드에 자료를 올리신 분은 반드시 원사에 가입바람.)  
 내영상, 설치, 행위분과의 경우 계획서와(도록용 자료사진)을 제출하시고 운영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작품사진은 반드시 출품작품과 일치하여야 하며, 구겨지지 않도록 가급적 보호판 사용바람. (핸드시그림의상, 하, 좌, 우 위치표시 할 것)

자료제출장소 : 부산미술협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4층 402호 (우)48501  
 자료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웹하드 (www.webhard.co.kr) 웹하드 (ID: bfaa21 / 비밀번호: 2004 / 폴더명: 제44회 부산미술제-회원, 비회원-각각 구분별)

출품료 : 회원 6만원 (도록 1인당 1부씩 배부) 비회원 20만원 (도록 1인당 1부씩 배부)  
 ※ 출품료는 출품원서의 제출마감 기일인 2024년 7월 5일(금) 이전에 납부  
 ※ 아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입금계좌 : 부산은행 022-13-001105-2 (예금주: 부산미술협회)

문의 : 사부산미술협회 전화 051-632-2400 홈페이지 http://www.bfaa.or.kr

### 2024 BFAA 아트페어

주최 : 사부산미술협회, 부산경남대표방송KNN(예정)  
 주관 : 2024 BFAA 아트페어 운영위원회  
 장소 : 부산백스코 제2전시장 (A, B, C, D홀)  
 접수기간 : 2024년 7월 1일(월) ~ 7월 19일(금) 17시까지  
 전시기간 : 2024년 10월11일(금) ~ 10월14일(월) (4일간)  
 전시장르 :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판화,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등  
 전시구분 : 부스구성(A부스, B부스, C부스, D부스)  
 지역대학연계 청년작가 초대전 /아트토크 /작품시연행사  
 참가비 납부 : 2024년 7월 29일(월)까지 ※ 부스비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참가를 포기할 것임.  
 부스 규격 및 가격

타입	수량	크기	기본제공	부스비
A 부스	91개	최우측 2m, 전면벽 5m, 높이 3m	1m×3m 9장, 조명등 4개, 책상 1개, 의자 1개	최 원: 100만원 중 간: 120만원 비회원: 150만원
B 부스	38개	최우측 3m, 전면벽 6m, 높이 3m	1m×3m 12장, 조명등 7개, 책상 1개, 의자 1개	최 원: 150만원 중 간: 170만원 비회원: 210만원
C 부스	14개	최우측 4m, 전면벽 5m, 높이 3m	1m×3m 13장, 조명등 8개, 책상 1개, 의자 1개	최 원: 170만원 중 간: 190만원 비회원: 230만원
D 부스	8개	최우측 2m, 전면벽 10m + 2m, 높이 3m	1m×3m 16장, 조명등 10개, 책상 1개, 의자 1개	최 원: 220만원 중 간: 250만원 비회원: 290만원

※ 부스비 포함사항 : 종합도록, 홍보비 및 책상 1개, 의자 1개, 기타 재한 비용 포함  
 (종합도록: A부스 1page, B부스/C부스 2page, D부스 3page 게재)  
 ※ A부스 최대 2인, B부스/C부스 최대 4인, D부스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며 page 레이아웃은 추후 협의  
 ※ 전시장 사정에 의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중간가격은 부산미술협회회원 50% 이상 참여해야 인정.  
 /기본제공 외 조명, 부스도색 추가는 추후 개별 신청. (추가 조명비 및 조명비, 부스 도색비 개인부담)

종합도록자료 제출 : 종합도록에 들어갈 작가사진, 프로필, 작품 이미지 자료 1점  
 출품자료 제출일자 : 2024년 7월 29일(월)까지  
 인터넷 제출 ① 웹하드(www.webhard.co.kr)에 접속 후 로그인(아이디 : bfaa21 / 비번 : 2004) ② 부스전/초대전 폴더선택-참여신청 작가명으로 폴더생성 → 자료제출  
 방문 제출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4층 402호 부산미술협회  
 부스 배정 : 부스 위치는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부스 추첨 일정 : 2024년 8월 9일(금) / 장소 : 부산미술협회 사무국  
 입금계좌 : 부산은행 101-2046-8532-01(예금주 : 사단법인부산미술협회 최장락)  
 문의 : 사부산미술협회 전화 051-632-2400 홈페이지 http://www.bfaa.or.kr

